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37:3-6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44장(새 19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찬송 18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항상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일서 4:20-21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 봉 헌(offering) 351장(새 32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73장(새 503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성경공부 및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30분에 있습니다.
3. 신성화 집사님 어머니(원금예성도)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유가족 위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이 신속히 공급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도록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기길숙 성도님

〈말씀묵상〉 요한일서 4:20-21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 사도요한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2. 우리가 받은 계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21절)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현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타가 알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외적이 부분에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반면에 외적이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내면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내면 즉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결국 속사람의 변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표현되고 증거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귄을 너무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추구한 나머지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거나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체험을 근거로 자신을 우월하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반면에 외적인 부분만을 우위에 둬서 불법 행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치우침이 없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면과 외면이 잘 균형 잡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